

함글함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 : 15

365

2016. 6. 19

2016년 주님의교회 표어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출 5:3)

오늘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도
(역대상 16:8-10)

오늘의 주요기사

- 2 통일을 바라보는 마음
- 3 영화로 성경읽기
- 4 파송교회 탐방
- 5 목회칼럼
- 6 아가나들이

교회 일정

- | | |
|----------|------------|
| 6/22(수) | 창립기념음악회 |
| 6/26(주일) | 창립주일(28주년) |
| 7/3(주일) | 성찬주일 |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집 : 함글함글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
주님의교회



6월 어느 날,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당신에게서 얻은 겨자씨만한 사랑을
이 세상에 심고 가꾸는 일이 어찌 이리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는 죽음으로 가는 길까지도 하나 되어 가지만
미워하는 사람 어두운 사람들의 발에
씨앗 하나 가꾸고 풀 한 포기 뽑아내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어찌면 이리 어렵습니까

-도종환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중에서

6월에

6월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 분들을 기리고 그들의 공훈에 보답하는 달이다. 멀리는 일제강점기의 독립투사나 나라를 되찾기 위해 애쓴 분들이 있고 6.25 사변 때 수많은 전투에서 전사한 국군들도 있지만 가까이서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작전이나 사고 등으로 유명을 달리한 군인, 경찰 등 우리 주변에도 많다. 몇 년 전부터 국제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을 통해 삶의 뿌리와 그 터전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에 얼마나 큰 비극인지 보게 되었다. 공동의 조상 아래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산다는 동질감이 주는 소속감의 중요성은 그 곳을 떠났을 때 더 분명해 진다.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교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현재 속해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들이 떠난 곳, 바로 이 땅과 이곳 사람들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살을 당할 처지에 놓인 동족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왕 앞에 나간 에스더의 용기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언제나 동족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던 바울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지에 묻

혀있는 분들의 묘비명에는 우리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큰 사랑이 드러나 있다. 대부분 20대의 나이에 몇 달이나 걸려 도착한 낯선 땅에서 길지 않은 시간동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묻혀서도 이 곳 사람들을 향한 간절함을 묘비명이 남긴 그들의 사랑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라고 가족을 두고 온 고국을 그리워하지 않았겠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친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헌신의 모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의 그림자이다.

함글함글

6.25를 맞아

통일을 바라보는 마음

세계외교사적 언어에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말이 있다. 과거보다 현재, 미래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치열하게 전쟁을 치루고 대치관계에 있던 독일과 연합국, 중국 러시아와 미국, 베트남과 미국 한국, 일본과 미국관계의 변화를 봐도 입증되는 말이다. 남북관계도 그런 말이 통할 수는 없을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있다. 그만큼 남북관계에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모 신문사에서 통일기금을 모으고 정권마다 남북 통일에 관한 정책을 내놓고 통일은 대박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다. 한때(1972년)는 남북7.4공동성명으로 온 나라가 금방 통일이라도 되는 듯 들뜨고 신문도 남북관계의 화해를 대서특필하였던 것도 벌써 45년 전의 일이 되었고 남북정상회담도 2차례나 가졌지만 남북관계는 긴장

관계 그대로 국민이 바라는 통일에 대한 진전은 요원하다.

왜 그럴까? 남한과 북한에는 전혀 체제가 다른 두 국가가 거의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1948년부터 남한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가 유지되어 왔고, 북한에는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수립되어 공산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유지되어 왔으며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김씨 왕조 독재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두 체제는 결코 하나의 국가 안에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월등한 경제력 우위를 내세우고 북한은 핵무기를 내세우며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시장경제체제로 국가번영을 얘기하고 있으나 북한은 체제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통일이 되어 하나의 국가가 되면 한민족의 번영을 위

해서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나 북한의 기득권층은 체제붕괴가 되면서 까지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핵무기 개발로 체제유지를 강화하다가 국제적 제재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원하나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무력통일에 더 관심을 갖는 모습이다. 따라서 당분간 남북은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자가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언젠가 여건이 성숙되어 통일 할 수 있을 때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서로 인정하면서 평화공존이 우선되고 그 신뢰관계가 쌓여 남북이 교류하기 시작하여 남북통일의 기틀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정권유지를 해나가는 기득권층과 일반국민들을 혼

돈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한 정권유지 세력인 기득권층의 생각이 변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통일문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감당키 힘들다.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이 사랑을 나누며 평온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평온함 삶은 갈등, 분쟁, 억압이아니라 화합, 평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막연한 통일의 망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가 더욱 튼튼해져서 중국이 변한 것처럼 북한 스스로 체제 변화가 되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통일이 되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 일 것이다. 통일은 대박이지만 아직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날을 기다리고 기도할 따름이다. **박용득 집사**

통일선교

제3회 통일선교학교 - 통일을 살라!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통일선교학교가 5월 19일부터 4주간 매주 목요일에 열렸다. 1일차는 통일을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길을 주제로 허문영 박사의 강의를 들었고, 2일차는 북한의 현실과 다가온 통일 이해를 주

제로 서훈 교수의 강의, 3일차는 신명철 대표의 보고로 남북나눔본부의 활동에 대해, 4일차는 오테레사 선교사의 강의로 남한에서 북한민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들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도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로, 많은 관심으로 약 130명이 등록하였고 통일에 대한 비전과 남다른 각오를 새롭게 하는 자리였다. 강의를 통해 무엇보다 인터넷으로 좁혀진 세계의 물리적 거리감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영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북한은 예전의 폐쇄적인 체제와 다른 많은 변화가 있고, 현재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섬세한 관여하심과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자리였다. **함줄함울**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89

聖物(성물)의 材料(재료) 중 香料(향료. incense)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출애굽기 30장 34~35절)

辭典的(사전적) 意味(의미)

주로 식물에서 추출되어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것 혹은 식물에서 추출된 복합체의 통칭이며 몰 약. 육계. 창포. 계피 등이 여기에 속한다. 향은

기름에 섞어 사용함으로 오래가도록 하였고 또한 바르기 쉽게 하였다. 대개 제사와 장례 등 의식을 위해 사용되었다.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대제사장 아론이 아침저녁으로 분향단에서 사르던 향기로운 향은 향제조법에 따라 지시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은유한다. 한편 지시대로 만들지 않은 향 곧 다른 향은 기도의 순수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신상의 안일을 구하는 기도나 우상에게 하듯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기도요 곧 다른 향인 것이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香(향기 향): 곡식을 대표하는 禾(벼 화)와 태양을 상형화한 日(해 일. 날 일)을 합쳐【벼이삭이 햇볕에 익는 냄새가 향기롭다】고 표현하여 기분 좋은 풍년의 기쁨을 나타내었다. 사실 벼 익는 냄새가 향기롭지는 않으나 농부의 느낌이 그렇다는 것이다.

★料(헤아릴 료. 감 료): 쌀이나 곡식을 상징하는 米(쌀 미)와 용량의 단위인 斗(말 두)의 합자로【쌀을 말로 되질하면서 헤아린다. 이처럼 헤아려 밥 지을 감으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함줄함울

섬기는 손 32



사랑나무 수련회에서 세족식을 하는 교사들의 손.

정성껏 발을 닦아주며 마음의 상처와 불안도 깨끗이 닦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진심으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섬김의 손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울

영화로 성경 읽기

잠시 이 땅에 들렀던 <어린 왕자>, 예수님

2015년 겨울, 앙트완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바탕으로 마크 오스본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 <어린 왕자>가 개봉되었다. 2016년 애니메이션 장편 부문에서 세자르 영화상을 받은 이 아름다운 영화는 원작의 이야기를 현대의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액자소설식의 구조로 되어있다. 딸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평생의 계획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시간마다 계획대로 생활하도록 강요하는 엄마와 딸의 이야기가 표면적인 줄거리이다.

네모로 가득한 도시의 한 주택가, 한국의 엄마와 한국의 딸을 떠올리게 하는 까만 머리, 갈색 눈동자의 모녀가 명문 학교 진학을 위해 이사한 동네에 유일하게 네모가 아닌 집이 있다. 이 낡은 집에는 눈썹과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사는데, 이 할아버지는 바로 어린 왕자를 만났던 조종사였고, 딸에는 아직도 낡은 복엽 비행기를 갖고 있으며, 뒤에 <어린 왕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삽화가 있는 글을 쓴 사람이었다.

딸은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종이 비행기로 접어 날린 <어린 왕자>의 첫 장을 읽고, 할아버지와 친구가 된다. 딸이 <어린 왕자>를 읽는 장면은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보아 구렁이를 그린 그림부터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으로 처리된다. 할아버지는 사하라 사막에서 만나 양을 그려 달라던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일일이 글로 썼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언젠가 자신을 두고 떠난 어린 왕자를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딸은 할아



영화 '어린왕자' 중의 한 장면

버지의 집 지붕에서 해가 지는 풍경을 보면서, 어린 왕자가 하루에 44번이나 석양을 보았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다.

늙고 약해진 할아버지가 병원에 실려 가는 것을 본 딸은 할아버지의 비행기를 타고 어린 왕자를 찾아 떠나고,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굴뚝 청소를 하고 있는 성장한 어린 왕자를 찾아 그의 기억을 되찾고, 바오밥 나무로 온통 덮여버린 어린 왕자의 별로 데려다준다. 지구로 돌아온 딸은 병원의 할아버지를 찾아 곧 다가올 이별을 예감한다.

처음에는 가혹한 경쟁 사회를 현실감 넘치게 묘사하면서 출발한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병원에 실려 가고 딸이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상상의 공간으로 넘어간다. 할아버지가 손으로 만들어 준 사막여우는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비행기는 마음먹은 대로 날아갈 수 있으며, 커다란 유리방에 갇혔던 별들은 하늘로 둥실 둥실 떠서 올라가는데, 그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소행성 B 612호에서 새에 매달린 비행기를 타고 지구에 오는 것도 낯설지

않다. 그것은 현실과 꿈이 섞인 기묘한 공간이다.

그 낯선 공간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 땅에 왔다가 하늘로 올라간 작고 어린 또 다른 왕자를 떠올리게 된다. <어린 왕자>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자. 새를 타고 행성 여행을 나선 어린 왕자는 권력에 중독된 왕, 재산 모으기에 혈안이 된 부자, 까닭도 모르고 쉴 새 없이 등을 켜고 끄는 사람, 술먹는 것이 부끄러워서 술을 먹는 술꾼 들을 만난다.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만난 신전의 장사꾼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다르지 않다.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처음 만난 것은 뱀이다. 뱀은 언제라도 어린 왕자를 고향으로 보내 줄 수 있다고 유혹한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만난 사탄과 다르지 않다.

그다음에 만난 사막여우는 세례 요한처럼 어린 왕자의 앞길을 준비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서로 길들여지면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고, 나도 너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라고 알려준다. 어린 왕자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라고 말하면서,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이 땅에 온 어린 왕자의 고뇌를 고백한다. 그리고 사막에서 뱀에 물려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야"라고 조종사에게 말한다.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기의 조종사와 같이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짜고짜 양을 그려 달라던 어린 왕자는 참 엉뚱한 아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마 18:5)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어렸을 때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 구렁이를 그린 적이 없다면, 아마도 어린 왕자를 알아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라고 하셨다. <어린 왕자>가 이토록 감동을 주는 까닭은, 아마도 이 땅에 와서 하늘과 별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가신 예수님의 은유이기 때문일 터이다. 예수님은 사막과 같이 막막한 이 땅에 오셔서, 마르지 않는 말씀의 샘을 남겨두셨지 않은가.

함글함글

> <영화로 성경읽기>는 우리가 보는 영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영화는 2015년 발표된 <어린왕자> 편입니다.

사역팀 소식

중보기도부 일일 수련회

6월 2일(목) 광림수도원에서 130여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참석하여 찬양을 드리고 특강을 들었다. 예수전도단 민경수 간사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내용을 들으며 커다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을 가졌다. 점심식사 후 광림수도원 기도동산을 팀별로 오르며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순례의 기도를 드렸다.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예수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갯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히

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 11처소를 돌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다. 예전에 전교인수련회 때 성극을 하며 성막을 지었던 추억을 더듬으며 함께한 모두는 중보기도사역에 더욱 헌신하기를 마음먹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함글함글



파송교회 탐방 : 파주 삼성교회 윤덕영 목사

통일의 문턱에서 영성을 외치다

주님의교회에서 사역한 목회자들의 사역지를 방문하여 서로 소식을 나누는 파송교회 탐방 그 세 번째로, 파주 삼성교회 윤덕영牧사를 만났습니다.

교회 오는 도로에 평양과 개성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저희 주님의교회도 올해 표어가 “이들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소서” 인데, 통일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개성하고는 약 20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 아주 가깝지요. 전에는 가끔 북한의 대남 방송이 들리기도 했답니다. 동네 이장이 바뀐 다음날, 누구누구 이장된 것 축하한다는 대남 방송이 들려서 놀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유로 통일전망대 같이 좀 높은 데 올라가면, 북한 마을도 보이고 날씨 좋은 날에는 개성 송악산도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마다 마치 어른의 어깨 위에 무릎을 탄 것 같습니다. 남한의 가장 위쪽 지역에서 북쪽을 넘겨다 보는 느낌이지요. 한반도에서는 중심에 해당하는 곳이다 보니, 저절로 통일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평양과기대에서 영어교사로 일했던 수지 김의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처 교회에서는 통일기도회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 부임하셨는지요.

삼성교회가 세워진 것은 1957년입니다. 천막교회로 시작해서, 1969년 함석지붕으로 된 25평 건물을 지었고, 1994년에 지금의 건물을 지어 입당했습니다. 초기에는 근처에 군부대가 많았기 때문에 주로 군인교회의 역할을 했습니다. 인근 주민과 군인들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군목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를 지나면서 군부대 내에 교회 처소가 만들어졌고, 삼성교회도 민간인 중심의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 앞에 열 두 분이나 되는 목회자가 섬

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것이 2011년 8월 첫 주입니다. 그리고 다음해 5월 삼성교회의 첫 번째 위임목사가 되었습니다.

전방에 가까운 이곳의 교회에 오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님의교회에서 부목사를 지내고, 이어 미국 샌디에이고 주님의교회에 파송되어 3년간 이민목회를 했습니다. 박사 논문을 쓰느라고 좀 지체하다가 귀국해서는 대전에서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이 교회 장로님이 농업중앙회회장을 하셔서 전국에 두루 발이 넓으셨는데, 저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청빙을 하셨습니다. 제 사정이 그 때 여의치 않았는데 한번 와서 설교라도 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셔서 약속을 지키려고 설교하러 왔다가, 주변의 자연환경과 성도님들의 순박함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성도들은 어떤 분들인지요.

북쪽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북한 사람들의 정서가 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주로 최근에 이 지역에 정착하신 분들입니다. 서울이나 도시에서 일하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처음 신앙을 갖게 된 분들도 많습니다. 5~60대 전후의 분들이 많으시고, 가까이 있는 웅진세무대 학생들이 삼십 명 정도 출석합니다. 저도 웅진세무대에 수요일마다 가서 기독교학생회에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서 설교할 때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여든이 넘으셨지요.

부임한 이후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라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임하자마자 교회사를 쓰게 된 일입니다. 부임해서 장로님과 말씀을 나누다보니, 창립 초기 교인들이 세상

을 뜨면 교회의 내력이 전해질 방법이 없겠다면서 교회사를 편찬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있는 자료 없는 자료를 찾아서 교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13대 목사입니다. 그 앞의 열두 분을 거의 다 만나러 갔습니다. 자료가 없으니 회고를 듣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다보니 소소한 에피소드도 많았습니다. 세 번째 담임목사를 지낸 분이 저의 동기 목사의 부친이셨던 것도 알게 되었고요. 실종된 분들도 노회기록을 뒤지고 탐문을 하면서 엮힌 실타래 풀 듯 추적을 해서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집 나간 어느 집아들을 찾아 주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부지를 매입한 일입니다. 교회 종탑하고 출입구 지역의 대지가 남의 소유였습니다. 오랜 기간도와 장로님들의 헌신으로 매입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지요.

그동안 목회하시면서 어려움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한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고, 교회학교까지 이백 명이 안 되는 성도이다 보니 가족같이 서로 터놓고 지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가운데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느 교회나 다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을 추구하자고 권면합니다. 행복하겠다는 것은 중심이 자신이고, 교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니까요. 거룩은 중심이 하나님이고 사랑이 바탕입니다. 당연히 저도 그런 점이 없는지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설교에서 강조하시는 점은 어떤 것인지요.

제가 원래 심리학, 종교학, 철학과 같은 인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성을 중시하고 영성을 추구하려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2006년, 성경과 복음에 따라야 한다는 회심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로 태어난 느낌이었고, 그 이후 성경을 신

뢰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찾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삼성교회에 와서도 강조하는 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성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예화를 듣기도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지난 5년 동안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듯이, 한 주일에 66권 성경 한 권씩을 설교하기도 하고, 성경 읽기를 독려해서 일 년에 전 교인이 통산 백독을 하게 권면했습니다. 성경 자체도 5~6번 설교한 듯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설교에 동원해도 성도들이 다 이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지금은 소그룹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 소그룹, 구역 소그룹, 교사 소그룹 등으로 나누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일에서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제목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고민하던 시기에 주님의교회에서 임영수 목사님과 문동학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때 받은 감동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어 주님의교회는 제게 모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서로 소식과 교제를 나누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함줄함울



목회칼럼

마음의 기울어짐 : 죄송함보다 감사함

신호대기중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위험하게 달리던 젊은이들이 제 차 옆에 멈추어 섰습니다. 용기를 내어 차창문을 내리고 말을 건넸습니다. “멋진데요?” 웬 낯선 어른이 핀잔이나 꾸지람이 아닌 존대말로 칭찬을 하니 흠짓 놀란 기색입니다. “헬멧을 쓰면 더욱 근사하겠는데요?” 한마디 덧붙이자, 그들은 싱긋 웃더니 푸른신호등이 켜지자 신나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이 곧 헬멧을 쓰게 되었을지는 만무하고, 다만 자신들을 염려해준 낯선이의 말 한마디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사람은 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바 윤리, 규범, 규칙 등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넓은 간극(間隙)을 갖

게 될까요? 일련의 선각자들은 그 실마리를 이성적 사고나 의지차원이 아닌 마음의 차원에서 찾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의 영혼이 죄를 향해 구부러져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철학자들은 ‘경향성’을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 영성학은 영성을 ‘삶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이성이나 의지보다 ‘정서’(affection)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되면 ‘죄송함’과 ‘감사함’이라는 두 가지 정서를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죄송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죄송해지고, 감사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감사하게 되지요. 즉 마음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된 성향은 ‘감사함’ 보다는 ‘죄송함’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지나치게 키워나가다보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함’이 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은 죄를 미워하는 지점까지는 유익하지만, 더 나아가면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을 포기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의 회개를 정죄감과 자책감으로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송해하며 뒤로 물러가 위축되기 보다는 감사함을 더 크게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인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께 죄송

함으로 물러나기 보다는 더 큰 감사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분들의 신앙의 길을 안내할 때,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일깨워주기 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며 감사함으로 응답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곧 있으면 한족집 임직식이 다가오고 비전트립이 있는 여름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교회의 모든 귀한 헌신의 자리에 서있는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을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 50:23)

정재상 목사

사역팀 소식

사랑나무 수련회를 다녀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주제로 5월 21일과 22일 토요일과 일요일 1박2일 오크밸리로 사랑나무 캠프를 다녀왔다. 사랑나무 부서가 생긴 후 처음 버스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 하룻밤을 아이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과 함께 다녀왔다. 참가자 모두의 모습에서 기대감과 설렘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복잡하고 바쁜 도시를 벗어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하시고 쉼을 선물로 주셨다.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모두가 모든 체면을 버리고 어린 시절로 돌

아가 하나님 앞에선 어린 자녀의 모습 같았다. 저녁에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나누면서 모두 눈시울이 불거졌다. 부모와 친구들, 선생님과 친구들, 부모와 선생님들이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기도하며 뜨겁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1박2일 동안 동거동락하며 지내는 모습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처럼,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닐까?

김동민 전도사

정신학원에 잇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32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교육사업 인퇴(引退)(10) - 정신여학교 이사회 조직



정신여학교 졸업등불행사

1927년 11월 경성노회 학무위원회 주최로 정신여학교유지발기회를 조직하였다. 후원회 발기인은 회장 차재명, 부회장 이재형, 서기 천윤석 부서기 유각경, 회계 오천영, 부회계 김형철로 하였다. 1928년 6월 12일 정신여학교 유지위원회가 조직되었다. 회원은 노회 학무위원 7인, 동창회원 중 4인, 학교직원 4인 합해 15인이었다. 그리고 후에 한국선교회, 경기노회, 동창회 및 재미동포 사회와 연합하여 정신여학교 이사회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1928년 12월 재단 이사회를 조직하여 원한경씨(H.H.Underwood)

를 설립자로 하였다. 아울러 경기노회는 학무부에서 올린 정신여학교 이사회 정관 승인 요청에 대해, 경기노회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학교를 지원할 여력이 없으므로 즉시 청원하지 못하고 미국선교부와 한국선교회에 유지방침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1929년 6월 한국선교부에서 이 안이 가결되어 미북장로회선교부와 경기노회가 협력하여 학교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희천 정신여고 교장

아기나들이



김시아 아기

2016년 2월 24일생

1. 저희 가정이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위에 굳건히 세워 주소서
2. 시아가살아가는 삶속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3. 세상 유혹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빠 김용희 / 엄마 김수연, 2016년 5월 22일 3부 예배



최환준 아기

2016년 3월 4일생

1.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2.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3.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소서

아빠 최도한 / 엄마 한기쁨, 2016년 5월 29일 3부 예배



김유진 아기

2016년 1월 17일생

1.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기를
2.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아이가 되기를
3.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기를

아빠 김기윤 / 엄마 박은형, 2016년 6월 12일 3부 예배



김효정 아기

2016년 1월 20일생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2. 지혜롭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도록
3.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기를

아빠 김민관 / 엄마 정덕경, 2016년 6월 12일 2부 예배



박유주 아기

2016년 2월 10일생

1.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는 은총의 삶을 누리길
2. 이름처럼 이 세상에 기쁨의 물대는 유주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3.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빠 박계진 / 엄마 유지연, 2016년 6월 12일 3부 예배



민설아 아기

2016년 1월 11일생

1.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아이가 되도록
2.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3.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을 위한 꿈을 갖는 아이가 되도록

아빠 민성진 / 엄마 한기향, 2016년 6월 12일 3부 예배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청빙위원회 소식

은퇴장로회와 시무장로회 간담회

6월 9일 은퇴장로회의 초청으로 시무장로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은퇴장로회에서 앞서 열린 청빙과 관련된 회의내용이 전달되었고 청빙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이 보고되었다. 주님의 교회 정체성을 점검하고 지나온 길을 반성하며 담임목사의 청빙을 위한 기도회 개최의 필요성을 제시되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은퇴장로회의 당부가 있었다.

함줄함울

교회단신

주님의교회와 함께하는 목회자 수련회

2016년 주님의교회가 농어촌교회, 기관 선교회, 군선교회 목회자와 함께 한 목회자 수련회가 “하나님 나라와 쉼, 그리고 시작”이라는 주제로 6월 13-14일 진새골 사랑의 집에서 열렸다. 국내선교위원회 협력 교회와 기관 중 34개 참여교회와 기관의 목사와 사모들이 참석하였다. 척박한 목회 현장을 떠나 1박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쉼이 되고 쉬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함줄함울

교회단신

정신여중,고 교직원 초청 사랑나누기



6월 1일 정신여중, 여고에 재직하는 교직원들을 초청하여 함께 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한 울타리 안에서 교직원들과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고 믿음 안에 동행하는 관계로 이어나가길 기대한다.

함줄함울

12 steps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13, 14

Bible and Mission 2

성경과 삶의 과제 2

6.29(수) ~ 7.27(수)
7:15 PM, 대예배실

세상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세상을 혼돈과 공허로부터 구하다 / 과학과 종교의 이름 치유하기 / 성경이 바라보는
오늘의 세상 / 종말에 대한 확신과 거룩한 헌신 / 초라한 기독교인의 정치관

문의 : 홍성욱 목사 010-9431-9910 www.pcltv.org 추가모집 6.19~29

step 9